

핵심주제

- 2018 동방경제포럼에서 글로벌 외국 기업들과 58개 합의서 체결
- '극동의 거리' 전시회 방문객수 기록 갱신
- 중국, 극동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는 40개 사업 추진 중



동방경제포럼 소식

2018년 9월 28일, 'Izvestiya'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 및 외국 기업들과 58개 계약 체결

계약건수 순위는 중국 (31개 2906억 루블), 일본 (16개 1조 5911억 루블), 한국 (9개 95억 루블) 순이다.

최종 집계된 결과에 의하면 제4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총 220개의 협약, 계약, 양해각서, 회의록, 로드맵들이 체결되었다. 계약 총 규모는 3조 1850억 루블이다. 대부분 러시아 지역 사회경제발전, 산업, 건설, 국제 및 지역간 협력, 은행업, 연료 및 에너지 분야, 첨단기술, 통신기술,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https://iz.ru/793757/2018-09-27/poseshchaemost-vystavki-ulitca-dalnego-vostoka-postavila-rekord>

2018년 9월 27일, 'Expert'

'극동의 거리' 전시회 방문객 수 기록 갱신

제4회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된 6일간 열린 전시회를 약 7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극동의 모든 9개 지역이 각자 경제 성과, 유망 투자프로젝트, 문화 및 민속 특징을 전시하였다. 케메로보 주는 전시회에 특별참가 하였다.

<http://expert.ru/2018/09/27/postavlen-rekord-poseshaemosti-vyistavki-ulitsa-dalnego-vostoka>

2018년 9월 20일, Russian Business Guide

제4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최초로 '혁신지대' 특별행사 진행

특별행사의 주요 안건은 러시아 내 기술개발사업과 디지털 경제 발전이었다. 러시아 및 국제 투자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여러 비즈니스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로스나노, VEB-Innovation, 극동 첨단기술재단, 극동개발사, 스콜코보 재단, RVC, 한티만시 자치구 및 유그라 발전재단의 최고경영자들도 참석하여 러시아, CIS,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접수된

100여건 프로젝트 중 선별 된 프로젝트들을 접하였다. 행사 결과로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제안들을 받았다.

<http://www.rbgmedia.ru/post.php?id=4487>

극동 국가정책

2018년 9월 28일, 'Rossiskaya Gazeta'

극동 항공운항에 추가예산 지원

러시아 연방 비축기금에서 극동 여객항공 추가지원금 책정이 올해 9월 27일 있었던 내각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총 4억 루블이 책정되며 3억루블은 극동 내 운항 노선에 배정되고 1억 루블은 극동과 러시아 유럽부 간 노선에 책정된다.

<https://rg.ru/2018/09/28/reg-dfo/pravitelstvo-vydelit-dalnemu-vostoku-dopsredstva-na-aviaperevozki.html>

2018년 9월 27일, RIA NEWS

일본, 러시아 단체관광객들을 위해 비자 간소화 도입

2018년 10월 1일부터 여행사를 통해 러시아에서 일본을 찾는 단체관광객들을 위해 비자 절차가 간소화된다. 단체 여행시 여권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이하 단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https://ria.ru/tourism/20180927/1529430685.html>

2018년 9월 20일, 'Vostok Rossii'

싱가포르측에 극동 프로젝트 참여 제안

아키모프 러시아 부총리가 러시아-싱가포르 정부간 회의에서 싱가포르 산무가라트남 재무장관에게 관련 제안을 하였다.

항만 인프라, 물류 및 북극항로 개발, 농업, 공항 근대화, 정보 및 디지털 기술 분야와 같이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들이 언급되었다.

<https://www.eastrussia.ru/news/singapuru-predlozhili-prisoediniti-k-realizatsii-proektov-na-dalnem-vostoke>

2018년 9월 26일, 'Komsomolskaya pravda'

러시아 대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홍콩 사업사절단 면담 진행

중국 금융 중심지의 최대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러시아 경제 주요 동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접하고 러시아 주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러시아 극동 내 협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사업협력 제안을 받았다. The Better Hong Kong Foundation 재단의 공식 사절단은 비즈니스 부동산, 정보기술산업, 물류, 교육, 과학, 농업, 수산업, 관광,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https://www.kp.ru/daily/268874/3930718>

2018년 9월 21일, TASS

중국, 극동에 30억 달러 규모의 40개 프로젝트 추진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중 산업협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밝혔다. 장관에 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지역들 간 협력을 통해 양국간 교역량이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

<https://tass.ru/ekonomika/5589029>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8년 9월 24일, TASS

하바롭스크 주 자유항의 첫 입주기업, 임업분야 활동 계획

'가반레스프롬'사는 소비에츠키야 가반 자유항에 목재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투자규모는 약 7000만 루블이며 추진을 통해 76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공장은 2018년경 최대 생산능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tass.ru/ekonomika/5596625>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

www.roscongress.org